

[건강·의료]

“현대의료-한방의료 일원화 돼야”

광주 시민사회단체 중심 토론회 개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일원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의료일원화 국민연대’와 광주전남행복발전소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의료일원화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중국에서 의료일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중남대 장궁야오(시진) 교수·행복발전소 유용상 고문·전남대 이석연 교수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 후 참가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장궁야오 교수는 “중의학의 경우 안정성이나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과학적 기준이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기본권이 늘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가에서 중의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발전 할 수 있게 민간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의료체계인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의료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서 양국의 의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상 고문도 “해방 이후 한방의료가 부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현대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기와 기술 등이 서로 교류되지 못해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 국민연대는 지난 2006년 11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출범식을 단체로, 이번 광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토론을 열어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최인성 교수>

기마자세로 지구력 배양…골다공증 예방 효과

수영 등 유산소 운동 심박수의 70~85% 유지를

◇활기찬 노년을 위한 운동=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질병이나 장애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능의 저하가 초래된다. ‘노화’의 특징은 기관의 잔여능력·환경의 반응능력·스트레스의 대응능력 감소 등이며, 이러한 노화가 찾아오면 질병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활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재활의학의 목적은 스트레스 최소화 및 정신적 이완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을 지켜, 질 높은 삶을 오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경학적 상태, 기능적 장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체운동이 활발하면 치매 예방과 치료 효과도 볼 수 있다. 근육과 관절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데, 근육 위축과 골다공증 같은 질환은 운동을 통해 예방·치료가 가능하다.

⑤황사가 심한 날에는 불가피한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인공눈물을 가지고 가서 자주 넣어주면 각각막에 부착되는 황사먼지의 농도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⑥눈의 불편감이 지속될 때에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운동

“주 3, 4회 20~30분 걷기만해도 근력 향상”

2006년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7.09%와 17.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24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에서 최인성 재활의학 교수가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운동기능의 증진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건강장수를 위한 유연성 운동= 유연성 운동은 도구·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밸을 어깨 넓이 이상 벌리고 허리를 편 차렷 자세로 선다. 양팔을 하벽지 측면을 스치면서 쭉 뻗어 올려 귀를 스치고, 양쪽 손바닥을 귀의 바깥 방향으로 돌린 뒤 그대로 내린다. 이 운동은 오십견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관절 운동이다.

고개를 치켜들고 자유형자세로 양팔 운동을 하며 좌우 비틀기를 함께 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다리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하는데 허리를 펴고 서서 양손으로 암전대를 잡고 조금씩 무릎관절과 엉덩이 관절을 구부려준다. 주저앉을 듯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력 증진과 지구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1주일에 3~4회, 20~30분씩이 좋다.

운동 강도는 나이에 따른 최대 심박수의

70~85% 정도를 목표 심박수로 잡는다. 충분한 준비운동 뒤 본 운동을 시작하며 이후 마무리운동으로 서서히 끝낸다.

부하(무게)·운동 횟수·운동 속도의 증가를 통해 근력을 키울 수 있다. 아령이나 저항밴드 등을 이용해 대근육군에서 소근육군으로 8~10회, 2~3세트를 실시하며 각 세트간 1~2분 휴식을 취한다. 주당 2~3회 전신운동을 하며, 운동 날짜 사이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준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운동의 생활화= 낙상도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큰 원인이 됨으로 평형성과 기동성 향상을 위한 운동이 필요

하다. 10~15분간 다양한 지지면 위에 서서 균형 유지하기, 외부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정도 최소화하기, 몸의 자세 조절하기 등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해서 ‘건강장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신체·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과로·스트레스를 피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알맞은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하자. 건강하고 활발한 노년의 삶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운동임을 잊지 말자.

(최인성 전남대병원 재활의학 교수)
/정리=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황사땐 렌즈 대신 안경 착용”

안경학회 눈 건강수칙 발표

대한안과학회가 황사가 빈번한 시기를 맞아 ‘눈 건강수칙’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학회는 황사 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먼지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황사먼지에 의한 점막의 손상 후 세균침입에 의해 점막의 손상 후 세균침입에 의한 세균성 결막염 등을 꼽았다.

다음은 안과학회가 마련한 ‘황사철 눈 건강수칙’이다.

①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 직접적인 황사 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

②부득이 외출할 때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깨끗한 물로 손과 얼굴

을 잘 닦는다.

③황사현상이 있을 때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 또는 결막과 렌즈 사이에 황사 먼지가 들어가서 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렌즈 대신 안경을 쓴다.

④눈의 충혈과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우선 깨끗한 흐르는 물로 가볍게 얼굴을 씻는다.

⑤황사가 심한 날에는 불가피한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인공눈물을 가지고 가서 자주 넣어주면 각각막에 부착되는 황사먼지의 농도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⑥눈의 불편감이 지속될 때에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연합뉴스

조선대 병원 ‘여성 류마티즘 질환자의 삶’ 사진전

조선대병원(원장 조남수)은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여류사랑, 그녀와 희망을 마주하다’ 사진 전시회를 오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질환자 중 여성 80% 이상을 차지하는 류마티즘 관절염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를 위해 류마티즘 학회와 류

터미즘 관절염 환우 모임인 ‘펭귄회’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20여점의 사진에는 학계, 정계, 사회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인사들과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들이 참여해 질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등의 모습을 사진작가 조선희씨가 카메라 앤글에 담았다. /인현주기자 ahj@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주최하고 비뇨기종양 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전립선암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전립선암 실태조사가 1일부터 광주와 화순지역에서 실시된다.

화순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권동득 교수팀은 1일부터 4월 한 달동안 광주시 각 구청 보건소 등에서 무료 전립선암 특이 항원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립선암 환자가 지난 2000년 1천457명에서 2006년 3천436명으로 국내 남성 암 가운데 증가율(236%) 1위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해 환자의 생명연장 및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전립선암 지도 만든다

오늘부터 광주·화순 등 보건소서 무료 암 검진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1차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조직검사를 실시, 지역별 전립선암 실태와 전국적인 유병률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검진일정은 1일과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

지 광주시 북구보건소를 시작으로 10일과 24일에는 광주시청 보건위생과, 15일 화순군민회관, 17일 광주시 서구보건소, 22일 남구보건소, 25일 동구보건소, 29일 광산구 운남동 노인복지관 순이다.

권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 치

료하면 10년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자비로운 암’이지만 말기까지도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번 무료검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암’이라고 불리는 전립선암은 50세를 전후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Test)라는 간단한 혈액 채취검사로 발견할 수 있다.

무료검사 일정과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광주시청 보건위생과(062-613-3323)와 각 구청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일가공인중개사

☎ (010) 234-0216 휴 011-609-0996
(광주우체국부문)

상가건물 매도

금호 대로변 대지 231㎡(70평) 5층 20억
봉천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전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전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광산구 구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도로변 건물 3,661㎡(100평) 3.3㎡당 250만
도로변 건물 1,030㎡(33평) 4층 250만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도로변 건물 1,630㎡(50평) 3.3㎡당 250만
도로변 건물 1,241㎡(40평) 3.3㎡당 250만
지선로 3,640㎡(100평) 3.3㎡당 250만
당첨 행정 소재지 대지 2,300㎡(70평) 2층 2억
한수 남면 대지 660㎡(20평) 4층 4천만
일아

기타부동산

• 대로변 대지 231㎡(70평) 5층 20억
• 충전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 충전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 충전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 광산구 구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 도로변 건물 3,661㎡(100평) 3.3㎡당 250만
• 도로변 건물 1,030㎡(33평) 4층 250만
•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 지선로 3,640㎡(100평) 3.3㎡당 250만
• 당첨 행정 소재지 대지 2,300㎡(70평) 2층 2억
• 한수 남면 대지 660㎡(20평) 4층 4천만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1㎡(70평) 5층 20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0㎡(70평) 5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08㎡(63평) 4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165㎡(50평) 4층 23억
• 광산구 구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 도로변 건물 3,661㎡(100평) 3.3㎡당 250만
• 지선로 3,640㎡(100평) 3.3㎡당 250만
• 당첨 행정 소재지 대지 2,300㎡(70평) 2층 2억
• 한수 남면 대지 660㎡(20평) 4층 4천만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1㎡(70평) 5층 20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0㎡(70평) 5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08㎡(63평) 4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165㎡(50평) 4층 23억
• 광산구 구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 도로변 건물 3,661㎡(100평) 3.3㎡당 250만
• 지선로 3,640㎡(100평) 3.3㎡당 250만
• 당첨 행정 소재지 대지 2,300㎡(70평) 2층 2억
• 한수 남면 대지 660㎡(20평) 4층 4천만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1㎡(70평) 5층 20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0㎡(70평) 5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08㎡(63평) 4층 18억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165㎡(50평) 4층 23억
• 광산구 구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봉천로 25평 2층 2,151㎡(70평) 3.3㎡당 250만
• 도로변 건물 3,661㎡(100평) 3.3㎡당 250만
• 지선로 3,640㎡(100평) 3.3㎡당 250만
• 당첨 행정 소재지 대지 2,300㎡(70평) 2층 2억
• 한수 남면 대지 660㎡(20평) 4층 4천만
• 환경 좋고 햇살 좋은 대지 23